

강력히 촉구 건의 합니다.

1.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의 행정편의 제공을 위해 경기도를 경기 북도와 경기남도로 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강을 경계로 남북으로 심화된 발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발전을 위하여 한강을 경계로 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경기도는 타시도에 비해 약 800만의 방대한 인구와 면적으로 인해 원만한 행정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시급히 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남북통일을 대비한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이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가 신설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5 】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

제안년월일 : 1996. 8. 21.

제 안 자 : 이홍규의원외 1인

☐ 주 문

건의안을 채택 관련기관에 송부

☐ 제안이유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과 주내면 주민의 숙원이며 민원사항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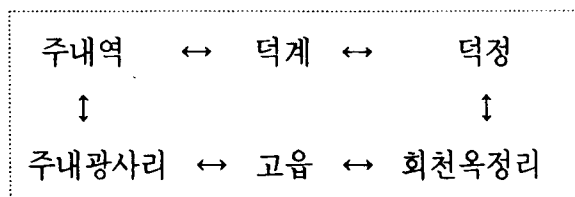
서울 시내버스 연장운행 건의안

□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과 주내면 5만여 거주 주민의 숙원이며 민원사항인 교통불편 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10만 군민과 양주군의회 의원 전원은 서울시내 버스의 연장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현재 운행중인 교통체계로는 이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가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차량운행이 일찍 끊어져 이지역 공단 근로자와 주민, 학생들의 면학 및 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의 해소를 위하여 서울시내버스가 연장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운행중인 영종, 평안여객은 미아리와 상봉동으로만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울 종로방향의 이용주민들은 중간에 버스를 갈아 타야 하는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아 서울 시내버스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 요금 체계도 의정부시에서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까지 일반 시외버스 요금이 600원, 시내버스가 400원으로 1인당 200원의 금액을 주민이 추가 지불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어 요구노선을 참고하여 반드시 연장 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요구노선]

종로5가 ↔ 의정부 ↔
(현재 운행 구간)



(연장운행 건의 지역)